

서울대학교 개교 44주년 기념

“모교방문의 날” 행사 마련

서울대학교 치과대학(학장 : 金明國 교수)은 개교44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모교방문의 날”을 선정하여 치대동문들을 초청하여 모교의 현황과 발전상황을 소개한 바 있다.

지난 10월 19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대강당(6층)에서 거행된 “모교방문의 날” 행사에는 김동순전학장(현 치정회 회장), 지헌택 아태회의 회장, 차문호 교수, 이춘근동창회장과 서정희 여치회장등 치과계를 이끌고 계신 원로동창이 대거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치대 백기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김명국 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일의 발전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 하고 있음”을 밝히고 1992년에 치과병원이 준공되어 병원이 새건물로 이사가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학건물은 개·보수하여 8개기초학교실 및 임상교수실을 기능적으로 배치하고 도서관을 신설하며 임상전단계 실습실과 기초학 실습실을 현대화하는등 교육환경을 전폭적으로 개선하여 다가올 21세기에 대비하는 밝은 청사진을 동문들에게 제시하였다.

또한 김명국학장은 “이런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동문들의 관심과 협조가 각별히 요망되며, 동문들이 모교가 계획하고 있는 발전방향을 이해하고 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제2부와 3부의 모임에서는 교육시설과 신축병원의 견학 그리고 만찬 및 기념품증정이 있었다.



▲21세기에 대비한 모교의 밝은 청사진을 보고 1992년에 새로 마련될 현대화된 교육환경에 큰 기대를 거는 가운데 경향각지에 흩어져 있는 원로회원들이 한데 모여 트트트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다.